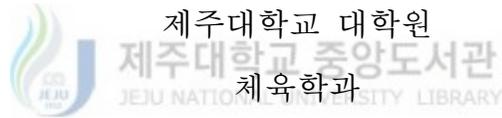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



김 덕 진

2002년 12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의 관계

지도교수 양 명 환

김 덕 진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덕진의 체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2년 12월

Relationship among Activity Typ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Circle

Kim, Deok-Ji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Myung-H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2. 1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문제	3
4.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5
1. 여가와 동아리 활동	5
2. 여가만족과 여가제약	12
3. 생활만족	20
III. 연구방법	27
1. 조사대상	27
2. 측정도구	27
3. 연구절차	32
4. 자료분석 및 처리	33
IV. 연구결과	35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35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39
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46
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	49

V. 논 의	53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53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54
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56
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	57
VI.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59
2. 제언	60
참고문헌	61
부 록	67



표 차례

<표 1> 대학별 동아리 활동유형 분류표	11
<표 2>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 분류	12
<표 3>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상관관계	15
<표 4>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28
<표 5>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만족의 원 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30
<표 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제약의 원 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31
<표 7>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만족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36
<표 8>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제약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37
<표 9>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38
<표 10>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39
<표 11> 학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40
<표 12>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40
<표 13> 참여의지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41
<표 14>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42
<표 15> 학년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42
<표 16>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43
<표 17> 참여의지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43
<표 18>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44
<표 19>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44
<표 20>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45
<표 21> 참여의지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46
<표 22>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의 차이	47
<표 2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제약의 차이	47
<표 2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48
<표 25>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상관관계	49
<표 2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50
<표 27> 네 개의 변인으로 구성된 경로도형의 공변량 분해 결과	52

그림 차례

<그림 1> 스포츠참가와 생활만족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모형 (Varca, Shaffer & Saunders, 1984)	23
<그림 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경로 모형(이종길, 1992)	24
<그림 3>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간의 경로모형 (김승곤 · 양명환, 1995)	24
<그림 4> 장애인의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형 (노형규, 1998)	25
<그림 5> 여가활동 참여와 대학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경로 모형 (강경빈, 1998)	25
<그림 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 모형	26
<그림 7>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32
<그림 8>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절차	33
<그림 9>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도형	51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 among activity typ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through circle activit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differences of activity typ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activity typ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activity type of circle, and causal relation among activity typ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f circle were analysed. The subjects were undergraduates who registered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02 from 9 universities which are located in Jeju province, Seoul Special City, Kwangju Metropolitan City, N. Gyongsang, S. Gyongsang, and N. Jeolla. Multistage cluster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respondents were all 900 students among which 809 were for actual analysis. The instrument for collecting data was a question paper whose title is "Survey of Opinions about University Students' Circle Activity." Without a standardized measuring instrument to analyse the causes of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ystematically, an valid measure were pursued to verify and classify the causes of circle activity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in the concrete. The validation of the collected data were verified through the factors analysis, and satisfactory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gained.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actor analysis with oblimin rotation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univariate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By these methods of study and process, the results through the data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ircl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ircle activity type, and the activity satisfaction in health and sport activity was much higher than any other

factors.

Third, there were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ircle activity typ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By the results above, it is concluded that the circle activity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s the factor which has a direct effect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it serves as a intervening variable between circle activity type and activity constrai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Keyword :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자신을 개발해 나가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스스로 찾으려는 강한 내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미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지적 인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해 나가며, 자신을 발견하고 생활방식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동을 필요로 한다.

대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여가가 보다 창조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교양이나 학업 능력의 향상은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한 욕구충족 및 스트레스 해소, 휴식, 취미생활 영위 등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여가활동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여가활동의 유형은 개인의 여가활동 특징과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인 여가만족 또는 인지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홍석표, 1991). 이와 같이 여가활동은 자아를 발견하고 미래의 주역들에게 올바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로 성,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가족형태, 직업상태, 결혼유무, 건강정도, 거주지역 등의 사회·경제학적 요인들로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변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 활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독서나 TV시청 등과 같은 정적인 여가보다는 스포츠 활동과 문화·예술활동 등과 같은 동적인 여가활동들이 여가만족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자신이 참가하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Ragheb과 Griffith(1982) 등은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 여가만족은 차이가 있으며, 스포츠와 같은 동적인 여가활동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김양래, 2000; 곽혜숙, 1998; 안혜영, 1995; 이명옥, 1999; 이종길, 1992; 정영린, 1997; 진태화, 2001),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계약(고수민, 1998; 김외숙, 1991; 박용란, 2000; 양명환, 2000; 최태수, 2001; 표영희, 1997; 홍성희, 1991),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모창배, 1993; 문희영, 2001; 박영숙, 2000; 이성철, 1996; 이수완, 2000; 임동일, 2001; 진봉국, 1993)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가활

동과 생활만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여가만족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강경빈, 1998; 김경식, 1996; 노형규, 1998; 김승곤·양명환, 1995; Iso-Ahola, 1980; Ragheb & Griffith, 1982; Sneegas, 1986)에서 여가만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는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더 나아가 김성희(1997)는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여가계약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여가계약 요인은 생활만족의 기본 요인인 여가만족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변인이며, 여가만족은 생활만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입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윤종효(2000)는 여가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계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김성희(199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가만족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향상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각하였을 때 증진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계약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오늘날과 같이 여가가 사회적 지표의 일부분으로 선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기의 여가활동 참여와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의 여가생활을 교육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학자들의 관심부족과 연구방법론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가활동과 관련변인들간에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상관관계에 의존하여 인과관계를 해석하고 있으며, 경로분석이나 공변량구조분석 등을 활용한 변인간의 인과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들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계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계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과 활동계약 및 대학생생활만족의 차이와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계약 및 대학생생활만족의 차이를 규명하고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계약 및 대학생

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1) 동아리 활동유형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말한다. 조작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와 각 대학의 동아리 활동 분류표를 토대로 문화·예술, 종교·봉사, 학술·교육 및 건강·스포츠 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활동만족

개념적으로 활동만족이란 특정 개인의 동아리를 선택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혹은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자기개발, 신체적 요인의 5개 차원에서 얻어진 측정값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개별 요인의 만족도 점수뿐만 아니라 총합 점수도 산출하였다.

3) 활동제약

활동제약이란 동아리 활동의 참여와 즐거움을 억제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에 의해서 가정되고 개인들이 지각하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저하, 시간구속, 지원

부족 요인의 3개 차원에서 얻어진 측정값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개별 요인의 제약 점수뿐만 아니라 총합 점수를 산출하였다.

4) 대학생활만족

대학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대학의 모든 조건, 기회, 이행에 대하여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만족의 느낌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대인관계, 대학만족의 3개 차원에서 획득한 측정값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개별 요인의 만족도 점수뿐만 아니라 총합 점수로 추정되는 전체만족도도 계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와 동아리 활동

1) 여가의 개념과 분류

여가(leisure)의 어원은 여러 문명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고대 그리스어인 schole(스콜레)와 라틴어인 licere(리케레)에서 유래하였다. 여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schole는 철학이나 학문 등 문화적 창조활동과 관련되는 의미를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학술토론이 열리는 장소를 뜻하는 반면, lecere는 ‘자유롭게 되다’(to be free) 또는 ‘허락하다’(to be permitted)라는 뜻으로서 leisure(레저)의 어원이 되었다. 리케레는 스콜레와 같은 뜻을 가진 개념으로서 허용된 활동, 구속받지 않은 활동 등을 뜻하며 또한, 생활을 위한 일로부터 해방되고, 기원, 사색, 배움 등의 활동과 아울러 그 활동에 주어지는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김오중, 2000).

여가는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해 왔고, 현재 또한 사회체제와 사회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여가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뜻도 일정하지 않다. 여가(leisure)라는 개념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여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 학자간의 견해도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여가는 시대적 상황과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여가에 대한 개념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과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모두 충족되고 난 후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잔여시간을 의미하며, 인간의 창의력이 소멸되어 기계화, 분업화, 사고의 획일화가 강조되어지는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수단으로써 그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여가의 정의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정의는 크게 시간적·활동적·경험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Godbey, 1994; Kelly, 1990).

첫째, 시간적(time) 관점에서는 여가를 일과 분리된 시간이라 보았으며, 일하는 시간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가활동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경험이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시간만의 계산은 여가참가의 형태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여가시간 그 자체보다는 참여자 자신이 여가를 어떻게 그리고 왜 선택했으며 얼마나 자유감을 만끽하였는가를 이해하여야 하며, 여가를 측정할 때는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시간의 질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활동적(activity) 관점에서는 여가의 개념을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개입하

는 동시에 자신이 핵심이 된 활동에 내재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어떠한 활동이나 시간도 항상 여가경험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여가를 결정짓는 것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경험의 질인 것이다 (Bammel & Bammel, 1996; Godbey, 1994).

셋째,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여가를 경험(experience)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를 시간과 활동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은 여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가의 경험적인 관점은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는 특정한 활동이나 자유재량시간이 항상 여가경험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여가는 양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경험하는 질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한편, 여가를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는 관점은 여가에 대한 정의를 시간적·활동적 관점에서 찾는 것이 아닌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에서 찾는 것이다. 이 개념은 그리스의 Aristotle로부터 Grazia 그리고 Pieper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이 견해의 핵심은 여가를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난 어떤 활동에서 오는 심리적 태도나 정신 상태를 말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를 심리적인 상태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려는 사고방식은 여가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가는 개인의 생활양식(life style)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행복하고 보람된 삶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활의 한 부분까지도 관계가 있다.

또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개발 또는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다. 여가라고 해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유익하게 활용하는 가운데 여가의 가치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는 인간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 그리고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가의 역할 및 가치는 여가 활동 경험 및 상황에 있어 특정 개인이 갖는 인식 및 감정의 상태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때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박용란, 2000).

2) 대학생과 여가

건전한 여가활동은 피로를 회복시켜 생명력을 순화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또한 여가선용은 교육적 기능도 지니고 있으며,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여가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규모 있고 실속 있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너무 치중했던 나머지 여가선용에 무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홍근하, 1998).

요즘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대학 주변의 교육문화 환경이 우려할

정도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일부이기는 하나 이러한 지적들은 대학 주변이 ‘오렌지 거리’로 착각될 만큼 카페, 노래방 등의 향락성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음주문화, 그리고 미팅문화 등의 놀이문화를 알아본 설문조사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우리 나라 대학생 4명 중 1명 정도가 여가시간이 생기면 유흥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흔히 외국 대학들에서 지칭되고 있는 파티스쿨(party school)의 면모라 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율의 저하, 서점의 기피현상 그리고 술집 등의 오락문화 확산 등이 우리 나라의 대학 곳곳에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현청, 1999).

박혜주(1997)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로 대학생생활에서의 여가의 중요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좀처럼 자기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을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욕구불만을 해소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

둘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개선시킨다. 여가활동은 자발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율적 의사소통과 애타적 태도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생활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학업능률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주었다. 입시만큼이나 힘든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여가활동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심신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킨다. 김미연(1996)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심신의 발달단계로 보아 성숙기에 있으며, 생리적으로 볼 때, 화골기(化骨期)에 있으므로 신체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여가활동을 통한 스포츠 참여는 건강증진 및 개개인의 생활력과 활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섯째, 여가선용의 지식을 넓힐 수 있다. 여가생활을 영위하면서 위에서 말한 여가의 기능을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 바람직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동아리의 개념

‘동아리’ 또는 ‘씨클’의 어원은 라틴어의 ‘circlus’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이것은 활동, 세력, 사상 등의 ‘범위’를 뜻한다.

또한 “동아리”란 대학생생활에서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임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교 동아리는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 등을 공유하는 대학생들에 의해 자생된 자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동진·김재운, 2000). 즉, 현재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 활동은 재학생들 중에서 동일한 목적 혹은 관심을 지닌 동호인들의 자주적인 집단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황산(2000)은 동아리 활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치활동으로서 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은 자신들의 조직을 스스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자치활동으로써의 특성을 갖는다. 비슷한 생각과 취미,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아리 행사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은 참여자의 자의의사에 의하여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은 자체적인 목적과 조직 구조를 가지고 특정한 활동을 전개하며,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전개된다.

둘째, 또래집단으로서 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은 비슷한 취미나 관심에 따라 동아리를 결성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단순히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아리에 속함으로써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며, 또래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참여의 주체로서 연극제, 음악회, 축제, 전시회 등 동아리 분과에 따라 다양한 행사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이는 상업주의와 감각주의 문화를 지양할 수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안 문화로써 중요한 역할을 의미한다.

셋째, 집단생활로서 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은 집단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아리 활동은 또래중심의 남녀 혼합그룹으로 공동의 목적, 관심사, 가치관, 비밀, 취미방향, 소속감, 홍보, 감탄 등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가시간을 운영하는 집단이다. 동아리라는 단체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으로서 상호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협동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단체생활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처럼 단체생활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공통된 목적 달성을 함께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이며, 집단 성원의 공통적인 요구에서 출발한 집단 목표 또는 과제를 집단 구성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

대학생 동아리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활동자체가 대학생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활동의 계획과 운영이 대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그 범주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아리는 대학생들의 전공학과 이외에 관심사를 공유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활발한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세미나를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스포츠를 즐기으로써 체력을 단련하기 때문이다(김동진·김재운, 2000).

이처럼 동아리는 소속감을 지닌 동호인들의 집합이므로 그 집합 속에서의 일정한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존재가 상호 인정되는 가운데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활동하는 회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은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교과활동만으로는 성취하기 힘들거나 필수불가결한 면을 충족시켜주는 동아리만의 활동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하나의 지식만을 습득하고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객관적인 자기 의식을 함양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전인을 탄생시키는 곳이다. 이는 타인과의 격의 없는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동아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호인들의 만남이라는 일차적인 의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내지 사회에의 환원기능도 수행한다(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1992). 즉,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정의적인 측면과 사회적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전인적 소양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대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동아리가 대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의 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하여 발전시킨다는데 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대학의 꽃’이라 지칭되며 성공적인 대학생생활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소속되어 있는 전체가 공감하는 의식체계와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할 때 동아리가 대학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며, 대학 문화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대학 문화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방식, 여가 문화 등을 포함하는 대학 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의 주요 특성과 변인들을 조사 분석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여가와 동아리 활동유형

첫째, 여가활동 유형의 살펴보면, 여가활동의 다양성은 서로 비슷한 내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여가를 유형별로 분류한 학자들의 기준 및 방법, 형태가 각기 다르다. 특히, 여가의 본질이 구속성을 배제한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여가를 노동, 가족, 사회적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혹은 지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Kaplan(1960)은 여가의 가치지향에 따라 여가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사교활동과 조직활동은 가치를 중요시하는 여가활동이며, 게임과 예술은 규율과 전통을 중시하는 여가활동이고, 이동활동과 비이동활동은 행동의 지향성을 강조하는 여가활동이다. Parker(1976)는 여가를 적극적(예체능 계통의 몸소 하는 활동)인 형태와 소극적(운동관람, TV나 Radio 시청 등)인 형태로 구분하였다. 한편, Nixon과 Jewett(1969)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여가활동 모형을 첫째 지적인 활동, 둘째 사교적인 활동, 셋째 신체적인 활동, 넷째 예술적인 활동, 다섯째 봉사적인 활동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이명옥, 1999 재인용).

또한, Compton, Edington, Hason(1980)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범주 안에서 또는 스포츠, 문화적, 사회적 행동으로서 참여의 질과 양에 의하여 여가활동을 분류했는데, 이러한 여가활동의 분류는 참가자의 성, 연령, 장소, 시설 및 환경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은 여가활동을 예술활동, 지적활동, 스포츠활동, 취미활동, 사교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이숙자, 2001 재인용).

한편, 여가활동을 분류하는데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관점에서 이종길(1992) 등은 여가활동 유형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여가를 행위자의 여가형태를 기준으로 스포츠, 문화예술활동 등의 능동적 여가와 독서, 음악감상, 낮잠, 영화관람 등의 수동적 여가로 분류하였으며, 임변장·정영린(1995)은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감상·관람활동, 놀이·오락활동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김종환(1995)은 여가참여 유형분석에서 스포츠·건강활동, 취미·교양활동, 감상·관람활동, 오락·사교활동, 행락·관광활동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분류 형태의 차이는 여가활동이 개인의 내적인 만족을 위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준거를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이숙자, 2001).

둘째, 동아리 활동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연계조직에 따라 학교에서 승인한 동아리들로 선배나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활동이 좌우되는 교내의 독립적 동아리,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역수준의 동아리, 종교단체나 한국청소년연맹 등의 청소년단체 등록 동아리, YWCA·YMCA·적십자·보이스카우트, 한국유네스코 등 국제단체 가맹 동아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동아리, 비공식 소규모 동아리(김정주외, 1998) 등의 구분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동아리 활동 내용에 따라 학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종교동아리, 체육동아리, 교양친목동아리, 문화동아리로 구분할 수 있다.

홍근하(1998)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을 사회과학, 예술, 종교, 학술, 스포츠 활동으

로 분류하였고, 김동진·김재운(2000)도 학술분야, 예술분야, 종교분야, 스포츠분야, 언어분야, 사회과학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신체적 활동을 매개로 한 스포츠동아리와 비스포츠 동아리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한편, 각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유형을 분류한 것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학별 동아리 활동유형 분류표

대학명	동아리 활동유형 분류
경남대학교	학술, 문화, 예술, 교양, 종교, 봉사, 체육
경북대학교	학술교양, 사회자원, 문예, 체육
동아대학교	학술, 문화, 예술, 교양, 봉사, 종교, 체육
부산대학교	학술이념, 교양봉사, 문화전시, 종교, 공연예술, 체육, 무예
서울대학교	학술, 연행예술, 매체, 체육, 무예, 사회, 종교, 취미·교양,
연세대학교	학술, 공연예술, 교양, 사회활동, 언어관련, 종교활동, 창작예술, 체육
영남대학교	학술, 응용학술, 어학, 교양, 예술, 봉사, 종교, 체육
용인대학교	학술, 문화, 사회, 종교, 체육
이화여자대학교	학술, 문화, 공연, 사회과학, 사회연대, 종교, 체육
인하대학교	학술, 공연, 종교, 봉사, 전시, 체육
제주대학교	학술, 공연예술, 전시창작, 교양봉사, 종교, 체육
조선대학교	학술, 문예, 봉사, 수련, 체육
창원대학교	학술, 문화, 교양, 봉사, 종교, 체육
충남대학교	학술, 예술, 문예, 예술, 전시, 학술, 교양, 종교, 체육
충북대학교	학술, 문화, 교양, 봉사, 종교, 체육
한림대학교	학술, 문화, 예술, 교양, 종교, 봉사, 체육
한양대학교	학술, 문예, 예술, 전시, 교양, 종교, 체육

※ 출처 : 각 대학 홈페이지 참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학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학술, 문화, 예술, 교양, 봉사, 종교, 체육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표적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기존의 선행연구와 각 대학에서 분류한 자료를 토대로 학술·교육, 문화·예술, 종교·봉사, 건강·스포츠 활동 등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예술활동은 음악, 미술, 공연, 전시, 창작활동 등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며, 종교·봉사활동은 종교적 신앙심 또는 박애정신을 갖고 타인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또한 학술·교육활동은 자신과 타인의 지식의 확대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며, 건강·스포츠

활동은 신체의 발달과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 분류

동아리 활동유형	세부적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활동	음악, 미술, 공연, 전시, 연극, 사진촬영 등
종교·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학술·교육활동	연구, 어학, 스터디 그룹 등
건강·스포츠활동	등산, 낚시, 산책, 조깅, 구기종목(축구, 농구, 배구 등), 투기종목(태권도, 유도, 검도 등), 라켓 운동(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을 포함한 스포츠활동

2. 여가만족과 여가제약

1) 여가만족의 개념과 분류

여가만족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에 관련되어 있어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다양한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에서의 개인의 기대와 내적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만족을 말하며(곽혜숙, 1998),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여가활동의 선택과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되고 있다(Beard & Ragheb, 1980). 즉, 일반적인 여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현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여가만족은 오랫동안 여가경험의 중요한 생산 혹은 결과로 인식되어 왔다(이문우, 2000; 박수정, 1995; 황보관, 1992; Driver & Tocher, 1970; Driver & Knopf, 1976; Hendee & Bryan, 1978). 그러나 여가만족의 구조 및 질적인 경험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즉, 여가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여가만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로 상이한 기술, 정의 그리고 이론을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념 및 방법론적인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Graefe & Fedler, 1986).

한편, 여가선택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여가만족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Iso-Ahola(1980)에 따르면, 여가만족은 단순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수와 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부 이용 가능한 여가 서비스를 본인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내면화시킬 때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즉,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또는 내적으로 동기 유발된 활동

을 통하여 나타나는 활동에 대한 만족감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만족도란 일반적인 여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현재 즐겁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다(이종길, 1992).

여가만족도의 특성은 심리적·교육적·사회적·휴식적·생리적·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6가지 하위요인은 Beard와 Ragheb(1980)에 의해 최초로 연구되어졌으며, Ragheb와 Griffith(1982) 등을 비롯한 여가만족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하위 구성 요인별 특성을 Beard와 Ragheb(1980)의 이론적 설명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명옥, 1999 재인용).

첫째, 심리적(psychological) 요인이다. 여가만족의 심리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는 다양하다. 즉, 각 개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활동 참가자들은 흥미, 기쁜 감정 및 즐거움 등의 정서적 만족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신을 탐구하고 자아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결국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즐기게 된다.

둘째, 교육적(Educational) 요인이다. 현대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지적 자극, 즉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알고 싶어한다. 여가활동은 새로운 경험, 호기심 충족,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기회에 대한 욕구 등을 자연스럽게 발로시키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셋째, 사회적(Social) 요인이다. 각 개인은 여가를 자유로이 선택하게 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집단이나 단체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기여한다.

넷째, 휴식적(relaxational) 요인이다. Patrick(1977)은 자신의 '휴식에 관한 이론'에서 놀이나 스포츠가 원기를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Patrick의 이론에 기초하여 볼 때, 여가활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휴식 및 원기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일상생활 중에서 직면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정영린, 1997).

다섯째, 생리적(physiological) 요인이다. 특정 개인은 건강 및 체력 증진, 근육 및 심장 강화를 위한 여가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역동적인 신체활동은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시킴으로써 체중조절 및 비만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섯째, 환경적(aesthetic) 요인이다. Rutledge(1971)에 따르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조화로움과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인간은 주위 환경의 상태에 따라 여가활동 중 느끼는 만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을 때, 참가자들은 그 활동에 대하여 보다 큰 흥미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선호도가 높아 결과적으로 여가만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가만족이란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해하는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여가만족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성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선택 및 참가를 규정하고 그 활동의 지속과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가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동아리 활동만족이라는 용어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욕구의 충족 또는 만족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정도나 혹은 감정으로 정의(Beard & Ragheb, 1980)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유형이나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여가만족 연구는 대부분 여가만족과 직업 만족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Miller(1983)는 여가만족과 직업만족간의 관계성을 조사하였는데, 140명의 근로자의 Sampel을 대상으로 Minnesota 만족 설문지(Weiss et al, 1967), 여가만족 척도(Beard & Ragheb, 1980), 인구통계학적 항목 등의 설문지를 통한 자료를 피어슨의 적률 상관계수와 Stepwise 다중회귀로 통계분석한 결과 직업만족과 여가만족간의 긍정적 관계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가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하나도 없었다(강경빈, 1998 재인용).

여가만족에 대한 대표적 학자라 할 수 있는 Beard & Ragheb(1980)는 여가만족도와 여가활동 참여의 빈도간의 관계, 여가태도와 여가활동 참여빈도간의 관계, 여가태도와 여가만족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여가만족은 여가참여에 가장 의미 있는 예측인자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연구에서 Brooks(1971)는 수동적 여가활동보다는 능동적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을 증대시킨다고 하며, Campbell(1979)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의 하나인 신체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옥, 1999 재인용).

여가활동 유형별로 여가만족도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한 Ragheb과 Griffith(1982)의 연구에서도 스포츠활동과 야외활동의 경우, 상관관계가 $r=.43$.40으로 사회활동($r=.37$), 문화활동($r=.27$), 독서($r=.15$), TV시청($r=.05$)에 비하여 관계정도가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스포츠 및 야외활동이 여가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상관관계

여가만족도	여 가 활 동						
	대중매체	독서	사회활동	야외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전체	.05	.15	.37	.40	.43	.27	.25

※ 출처 : 정영린(1997)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에서 재인용(p. 40)

임변장·정영린(1995)도 서울지역 20세 이상의 남녀 4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 하위요인 중 환경적 만족도를 제외한 그 외의 하위 여가만족 요인에서 각기 상이한 차이가 있고, 특히 스포츠활동만이 다른 여가활동 보다 매우 높은 여가만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양례(2000), 안혜영(1995), 이명옥(1999) 등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연구에서도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이 여가만족의 6개 하위 요인인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3) 여가제약의 개념과 분류

여가는 경제발전, 소득향상, 여가시간 증대, 삶의 가치에 대한 의식변화, 과시적 소비성향, 복지차원의 여가정책 등으로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증대로 여가수요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공급측면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여가문제들을 생산하고 있다. 즉, 여가활동 주체인 개인의 여가의식이나 가치관의 미확립, 여가활동 공간·시설 부족이나 미비, 여가활동 프로그램 부족, 여가자원이거나 여가정책과 제도 등의 미흡, 여가산업의 지나친 상업화 등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가활동을 영위하는데 직·간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지각되어 여가활동 경험 후 만족도가 낮아져 일시적 참여 중지나 불참 등으로까지 과급될 수 있다.

오늘날 국내외 할 것 없이 여가문제를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함에 따라 연구주제로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최근 여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가활동의 제약 또는 장애요인을 규명하는 여가활동의 불참이나 불만족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가제약’이라는 용어는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모든 정의는 비슷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여가제약은 “개인이 여가를 즐기고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 (Jackson, 1993)이며,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 혹은 개인적 만족을 방해하는 요인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개인이 인지하는 내적 심리상태와 외적(대인적, 상황적) 환경으로 인식되어 왔다(Jackson, 1988; Jackson & Ruck, 1993). 여가제약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여가활동의 불참이유로 판단되며, 개인의 여가활동 빈도, 강도, 지속시간, 특성 등을 제한하거나 방해함으로써 문화, 사회,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Ellis & Rademacher, 1986).

여가학자들 가운데 Crawford와 Godbey(1987)는 여가제약이 여가의사 결정과정에 존재하며, 개인의 여가 선호와 참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념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제약의 근본적인 원인을 크게 개인내적(intrapersonal), 대인간(interpersonal), 구조적(structural)인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한 여가제약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 제약 모형은 Crawford 외(1991)가 발전시켰다. 이들은 전형적인 여가제약 모형을 통하여 연속적인 체계 내에서 제약 상호간의 관계를 제기하였다(박용란, 2000 재인용).

첫 번째, 여가선호는 개인내적 제약이 해결되거나 그 효과가 인간의 의지에 따른 활동과 특권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형성된다. 개인내적 제약은 여가선호와 참여를 동일한 속성으로 보거나 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호에 상호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태를 의미한다. 개인내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쉽다. 개인내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인간 제약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개인은 대인간 수준에서 제약에 직면하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구조적 제약을 직면하기 시작한다. 대인간 제약은 특정한 여가활동의 참여에 있어 내재적 상호 작용이나 개인적 특성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수적인 제약이나 동반한 참여자와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제약으로서 단체적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인간 제약은 개인내적 제약을 극복하고 난 후에 지각하는 것이며, 개인의 특성에 따른 관계 또는 개인 상호간의 작용에 대한 결과로서 여가활동에 참여할 친구나 동료를 찾을 수 없거나 이들과의 선호도가 일치하지 못하여 경험하게 되는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여가활동 참여는 구조적 제약의 부재나 극복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조적 제약

은 대인간 제약을 극복하고 난 후에 느끼는 것이며, 여가선호와 참여에 관련된 요인을 묶어서 보편적으로 개념화하는 제약으로서 여가선호나 선택과 참여 사이에 매개하는 요인이다.

Crawford 외(1991)는 이 모형을 근거로 하여 중요한 제약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가장 가까운 개인내적 제약에서 가장 먼 구조적 제약까지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개인내적 제약의 영향력이 제일 크며, 가장 먼 구조적 제약의 영향력이 아주 미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여가행동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인 개인내적 제약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적어도 내적으로 모두가 참여자들의 잠재적 변화나 강도에 대한 미약한 인식과 함께 제약은 여가참여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서 사실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제약을 접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참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약(constraints)이 장애(barriers)와 동일하던 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모형은 경험적인 면에서 입증이 부족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연구(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Raymore & Godbey, 1994)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박용란, 2000 재인용).

후속연구에 의해서 여가 참여과정의 개인내적·대인간·구조적 제약에 따른 각각의 다른 분류가 형성되었으며, 제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관계에 기초를 둔 모형의 실험을 통해 제약의 분류에 따른 상호 작용과 제약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가참여는 다양한 조정 요인을 통한 극복의 산물이며, 이러한 조직수준에 따른 개인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Samdahl & Jekubovich, 1997).

이와 같이 여가제약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인간의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여가활동의 중단원인이 되거나, 여러 복합적 요인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여가활동 선택 및 참여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Henderson & Stalnaker, 1988; Jackson, 1988). 또한, 여가제약에 대한 인지된 경험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 교육수준,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여가활동 참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원형중, 1998; Crawford & Godbey, 1987; Crawford et al., 1991; Samdahl & Jekubovich, 1997).

여가제약의 속성에는 대체적으로 시간, 비용, 능력 등의 개인적(내적) 요인을 물론 시설, 기회, 규범, 표준적 압력 등의 사회적(외적)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화,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김동환, 1999; 윤중효, 2000; McCarville & Smale, 1993).

한편, Witt와 Goodale(1981)은 각 제약이 가족생활주기와의 관계의 형태에 따라 U형관계, 역U형관계, 정관계로 분류하였고, Jackson(1983)은 최소한 흥미, 시간, 금전, 시설과 기회, 기능과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이 여가활동에 대한 불참의 이유, 참여중지의 이유, 여가

제약 등의 개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윤종효, 2000 재인용).

Franken과 Raiij(1981)는 여가제약을 개인의 능력, 지식, 관심 등의 내적 제약과 시간, 비용, 거리, 시설부족 등의 외적 제약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Searle과 Jackson(1985)은 참여를 완전히 방해하는 방해제약과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작은 범위에서의 참여를 억제하는 억제제약으로 분류하였다. 여가 제약과 여가활동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Edginton과 Hanson(1992)은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개인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제약, 시간, 건강 소비, 통신, 경험, 여가가치, 기술, 환경제약 등으로 나누었다(박용란, 2000 재인용).

국내의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외숙(1991)과 윤종효(2000)는 여가제약 유형을 시간적 제약, 비용적 제약, 개인적 제약, 가족적 제약, 사회적 제약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철화(1996)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 참여제약을 시간적,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유승일(1999)도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참여 주관자와 참여제약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제약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시간적, 가족적, 경제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표영희(1997)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향유에 대한 제약을 18가지 유형으로 원인을 규명하였고, 여가활동의 참여 제약 요인으로 시간, 기능, 금전, 기회의 문제와 개인 내재적, 즉 인간 내적 제약요인을 들었다. 황인남(2000)은 여가제약 요인을 의사결정 제약, 의사소통제약, 시설 및 환경제약, 경제적 제약, 시간적 제약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양명환(1999)은 신체활동 참여를 흥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지속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로 시간부족, 동기부족, 시설 및 자원부족, 피로, 운동에 대한 지식부족, 다른 활동으로의 관심 변경, 의지력 결여 및 사회적지지 결여 등을 주된 제약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고수민(1998)은 교사들의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시간부족, 시설/프로그램 제약, 동기부족, 게으름, 동반자 부재, 경제적 비용이 규칙적인 여가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설 및 장소의 부족, 시간의 부족, 사회적 인식의 부족, 경제적 부담, 동반자의 부족 등이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동아리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동아리 활동제약이라는 용어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4)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제약의 관계

최근 들어 여가활동 참여와 제약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연구로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가제약은 여가장애, 여가권태 등의 명칭으로 여가 연구에 있어서 독특한 하위분야가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관련된 연구방법으로는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를 고찰하는 방법과 여가제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법이 지배적이다(Driver, Brown & Peterson, 1991). 그 동안, 여가참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익 또는 행복을 억제하는 변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오면서 여가가 행복하고 건전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은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이러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가제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가제약의 유형별로 여가선호에 대한 제약요인의 개입모형을 제공한 연구(구창모, 1995; Crawford & Godbey, 1987; Godbey, 1993; Jackson, 1988, 1990; Samdahl & Jekubovich, 1993), 여가제약의 유형별 구조를 파악하고 경험적 결과를 해석한 연구(고수민, 1998; 김성희, 1997; 박용란, 2000; 원형중, 1998; 최태수, 2001; 홍성희, 1991), 새로운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 및 중단요인에 관한 연구(남사옹·이창준·양명환, 1995; 이철화, 1999; Buchanan, 1985; Hultsman, 1993; Jackson & Dunn, 1988; Jackson & Rucks, 1993) 등이 있다.

특히, 김성희(1997)는 가정주부의 여가제약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의 인과관계를 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주부의 여가제약 인지도는 가족응집도는 향상시키지만 여가만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된 경험적 연구 가운데 일부는 제약이 항상 참여를 막는다는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Shaw, Bonen와 McCabe(1991)는 제약과 참여의 부정적 관계를 반대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자기단련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제약과 참여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을 뿐 그 외의 특별한 부정적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생활양식, 신분, 수입 등)은 인지된 제약보다 참여와 더 큰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Raedeke(1997)의 주장에 의하면, 신체적 활동 동기의 인지정도가 높은 여가 참여자들은 낮은 수준의 참여자들에 비해 흥미의 부족이나 제약을 더욱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Saw(1991)는 물론, Kay와 Jackson(1991) 역시 제약요인의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필연적으로 여가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제약이 완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율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박용란, 2000 재인용).

이처럼, 여가 제약이 항상 여가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빈번한 여가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가 높은 제약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의 하나는 참여자들이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그 후에 극복방안으로 개념화되고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이와 같이 참여에 대한 위협을 제시한 연구들은 인지된 제약이 참여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종종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며, 여가참여자들이 제약을 무시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여가제약이 비참여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 있는 많은 결과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할 때, 여가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함으로써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와 참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생활만족

1) 생활만족의 개념과 여가활동과의 관계

생활만족이란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로 사기(morale), 행복(happiness),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적응(adjustment),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등의 용어와 함께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왔다(Graney, 1975).

여가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가와 생활만족의 이론적 관계가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노형규, 1998).

생활만족에 관련된 주요 이론에는 활동이론, 목적이론, 상향 대 하향이론, 판단이론 등이 있으며, 접근방법과 관련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 달성이나 욕구 충족보다는 인간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오래 전에 Aristotle은 활동의 중요성과 활동이론의 주요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행복이 인간의 능력이 우수한 방식으로 잘 수행되어지는 바람직한 활동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취미,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경험 이론을 통해 개인이 의미 있고 흥미를 유발하며,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은 적절한 난이도 수준의 활동에 몰입할 때, 생활만족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활동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보다 즐겁고 쉽게 할 수 있으며,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목적이론(Telic Theory)은 인간의 특정 목적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생활만족이 얻어진다는 견해이다. 생활만족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목적달성의 시간적 개념과

생활만족의 최고 수준의 관계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점은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활만족을 느끼는 것인지, 목적을 달성했을 때 생활만족을 느끼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생활만족의 느낌을 경험하지만, Scitovsky(1976)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활만족이 실제 목적을 달성했을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것은 목적달성이 단시간의 감정적 상승을 일으키는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개념에서의 생활만족의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목적이론은 생활만족이 개인의 장기적인 생활에서 갖게 되는 많은 목적들을 조화롭게 통합시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판단이론(judgement theory)은 생활만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특정 기준과 실제 상태간의 비교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기준의 문제는 각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기준의 종류에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의 생활만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의 경험에 비해 더 나은 것이라면 생활에 만족을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부모나 친구, 지도자와 같은 주요 타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자아개념에 기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포부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생활만족의 기준이 달성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생활만족을 개인에게 유용한 안녕, 행복, 삶의 질의 감정으로 생각한다. 생활만족이나 행복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용어로 서술될 수 있는 것보다 주관적이며 철학적인 것이다. 조사연구는 객관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안녕, 개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정신적 마음의 안녕과 같이 생활만족에 공헌하는 양적이고 질적인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측정이 요구된다(강경빈, 1998).

청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은 후에 사회인으로서 치루어야 할 과업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단계의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김재은·이은순·강순화, 1997).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만을 부채질하고 있고, 입시 막바지에 이르면 공허함과 동시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구조의 불안정과 실업률 상승은 대학생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더 이상 낙관적이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외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삶의 질 차원에서 대학생 생활 만족도를 다룬 김재은 외(1997)의

연구는 주목할 만 하다. 그는 대학생활을 크게 학업위주의 시간과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대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대학생의 여가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만족도를 학업생활 영역, 대인관계 영역, 경제와 주거 영역, 가치관과 종교 영역, 정보화와 민주 영역, 여가와 시간관리 영역, 가족관계 영역 등의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혜성(1989)은 대학생의 문제진단을 신체적, 경제적, 가정적, 대인관계, 성격, 학업생활, 여가시간, 진로문제, 종교 등의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김은정(1993)과 조수진(2000)은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였으며, 김준곤·성한기·이춘희·박경자(1991)는 대학생활 만족도의 요인을 14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들 요인은 일체감, 교수와의 관계, 학교정책에 대한 만족, 전공에 대한 만족, 사무직원과의 관계, 학생회에 대한 만족, 도서관, 장학금, 교우관계, 여가공간, 학교의 진로대책, 취업가능성, 성적평가 공정성, 학생자치 활동 및 시설 등으로 주로 학교정책 면에서 평가하였다.

Tinsley(1986)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오직 여가를 경험함으로써만이 만족될 수 있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여가경험이 어떻게 심리적 요구만족을 고무시키는지 설명하는 여가경험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Stockdale(1985)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은 주로 그들 자신과 상황에 대한 그들의 느낌 방식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자유시간에서의 만족은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에 의미 있는 예측인자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시간을 그들의 생활의 다른 면과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노형규, 1998 재인용).

Pittman(1983)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간 유의미한 관계성 그리고 생활만족과 직업만족간의 긍정적 관계성을 밝혔고, Kelly, Steinkamp & Kelly(1987)는 성인 생활만족에 가장 큰 공헌을 미치는 두 가지 형태의 여가는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과 높은 자긍심과 유능성을 제공하면서 학습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참여활동이라고 제안함으로써 여가는 인지된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김경식, 1996 재인용).

한편, 임상용(199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참여와 생활만족 및 우울성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활동 참가자가 비 참가자에 비해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있어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종길, 1992)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학생활에 있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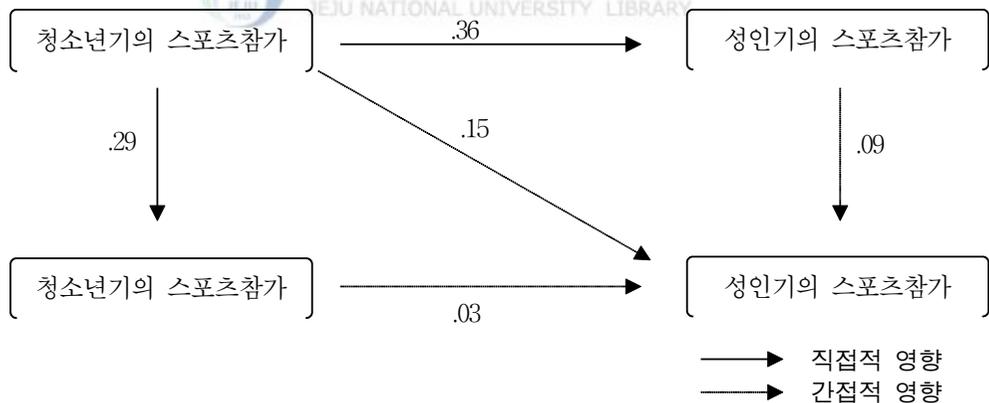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일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살을 하면서 장래의 진로와 앞으로의 취업난,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대한 부담감,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적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2)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간의 관계

지금까지 여가활동 참가에 따른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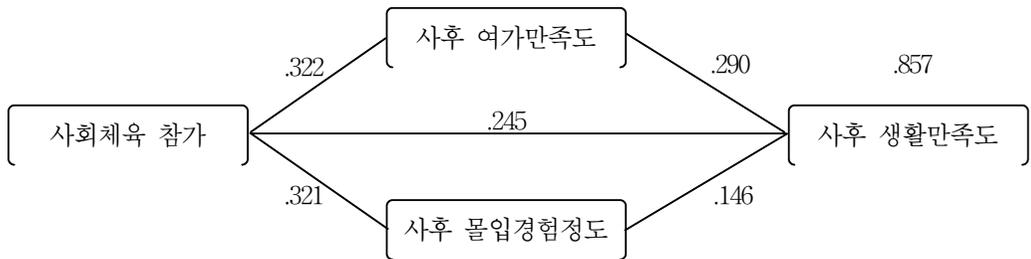
Varca, Shaffer, Saunders(1984)는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참가와 생활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9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인 남자 262명과 여자 26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스포츠 참가와 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경로 분석한 결과, 스포츠 참가 경험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의 스포츠참가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김경식, 1996 재인용).



<그림 1> 스포츠참가와 생활만족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모형(Varca, Shaffer & Saunders,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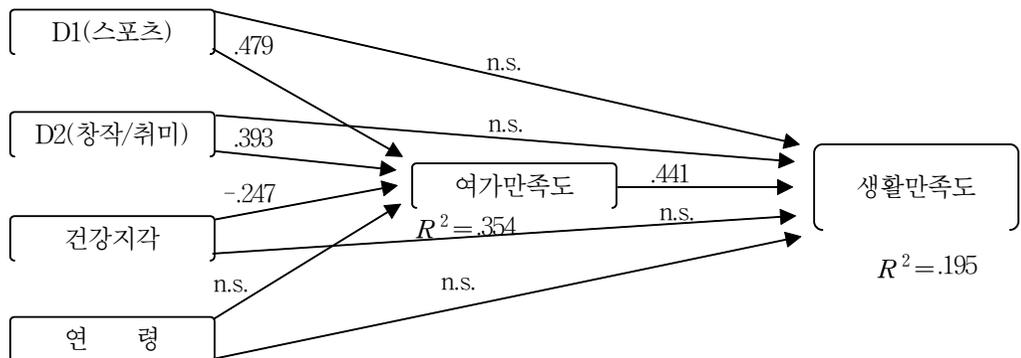
사회체육과 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종길(1992)은 여가만족과 여가몰입의 변인을 통해 생활만족의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그 주요과정은 사회체육 참가를 중심으로 여가만족 및 여가몰입의 사전·사후의 측정결과들이 생활만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내재된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림 2>의 경로모형을 보면, 사회체육 참가자 집단이 비참가자 집단에 비해 사후 여가만족도, 사후 몰입경험정도, 사후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체육 참가와 여가만족 및 여가몰입은 생활만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체육 참가는 생활만족에 대해 여가만족과 몰입경험을 통한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 매우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경로 모형(이종길, 1992)

김승곤 등(1995)은 여가활동 유형,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건강수준), 전체 여가만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만족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독립변인은 전체 여가만족 변인이었다. 전체 여가만족 변인에 의하여 생활만족은 약 19%정도 설명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여가활동 유형,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간의 경로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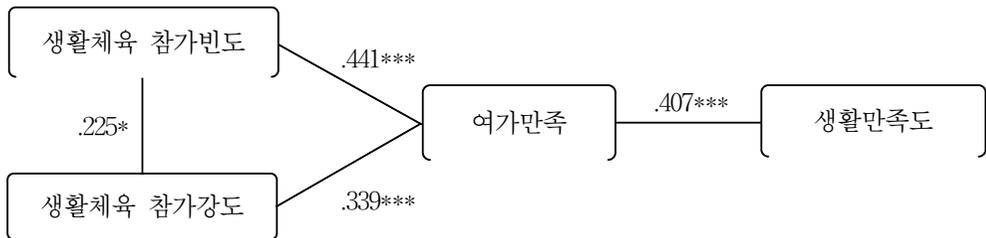


<그림 3>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간의 경로모형(김승곤·양명환, 1995)

김경식(1996)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여가만족은 생활만족에 기여하며, 여가활동의 참가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들은 여가활동의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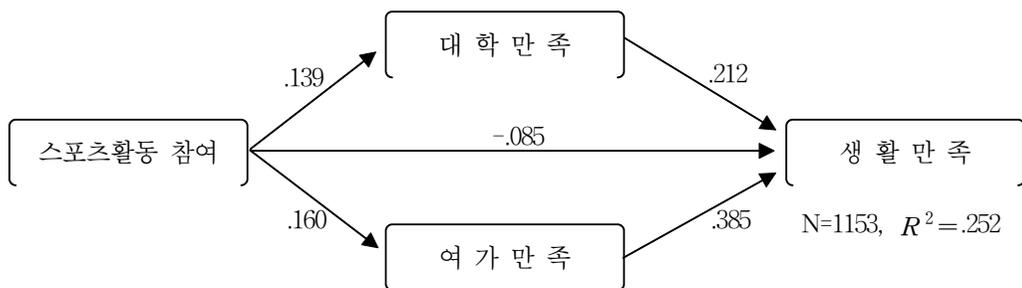
관계를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노형규(1998)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참가 유무, 참가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가는 여가만족에 직접인적 영향을 미치며 생활만족에는 여가만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 생활만족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림 4> 장애인의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형(노형규, 1998)

한편, 강경빈(1998)은 대학생 남자 739명, 여자 414명 총 1153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참여와 대학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변인은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정도는 대학만족과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명하였다. 그러나, 모든 여가활동에서 각각의 참여정도는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대학만족과 여가만족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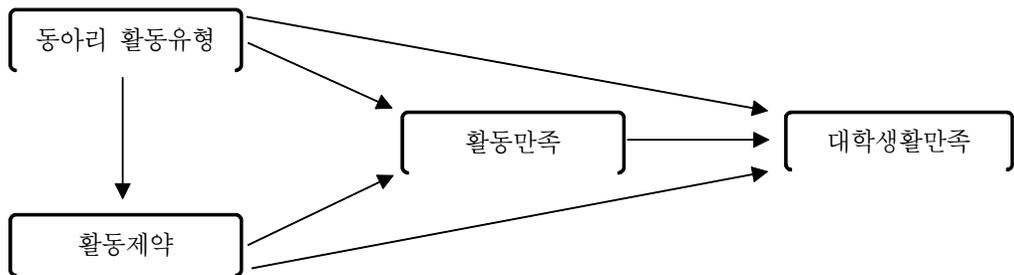
<그림 5> 여가활동 참여와 대학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경로 모형(강경빈, 1998)

3) 본 연구에서의 경로모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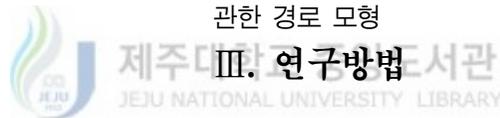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여가만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대학생들의 대표적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관계 모형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모형을 <그림 6>과 같이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림 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유형, 활동만족과 활동제약의 하위변인과 대학생활만족의 요인을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한 다음,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 측정도구, 관련변인들을 설정하였다.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소재한 9개의 대학에서 2002학년도 2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부수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전국적 표집인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집락표집법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총 900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900명이었으나, 실제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 수는 수집된 자료 중에서 이중으로 기입하거나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91명을 제외한 총 809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내용은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4문항, 동아리 활동유형에 관한 항목 1문항, 활동만족에 관한 항목 23문항, 활동제약에 관한 문항 12문항, 대학생생활만족에 관한 항목 12문항으로 총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구성지표 및 내용 그리고 문항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의 주요 구성내용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항 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1), 학년(1), 건강정도(1), 참여의지(2)	4
동아리 활동유형	문화·예술, 종교·봉사, 학술·교육, 건강·스포츠	1
활동만족	정서적(5), 사회적(5), 교육적(4), 자기개발(5), 신체적(4)	23
활동제약	동기저하(5), 시간구속(4), 지원부족(3)	12
대학생활만족	가치관(4), 대인관계(4), 대학만족(4)	12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 학년, 주관적 건강정도, 참여의지로 분류하였다. 성은 남·여를 이분화 하여 측정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서열척도로 평정하였으나 분석 목적상 연속자료를 명목형 척도로 만들기 위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2차원으로 유목화 하였다.

주관적 건강정도는 Spreitzer Snyder(1974) 등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자신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매우 허약’ 1점, ‘허약한 편’ 2점, ‘보통’ 3점, ‘건강한 편’ 4점, ‘매우 건강’ 5점을 부여하여 5단계로 평정하였으나, 분석 목적상 연속자료를 명목형 척도로 만들기 위하여 ‘매우 허약’과 ‘허약한 편’을 ‘하’, ‘보통’을 ‘중’, ‘건강한 편’, ‘매우 건강’을 ‘상’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의 참여의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5단계로 평정하였으나 분석 목적상 ‘매우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를 ‘하’, ‘잘 모르겠다’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상’으로 재분류하였다.

2) 동아리 활동유형

동아리 활동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과 각 대학별 동아리 활동 분류표를 토대로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종교·봉사, 학술·교육, 건강·스포츠 분야의 4개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문항은 개방형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4개의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3) 활동만족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만족 척도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실정과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자체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측정도구를 제작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이종길, 1992; Beard & Ragheb, 1980)의 여가만족 척도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는 고유의 특수한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 자료를 구하고 귀납적 내용분석(<표 5>참조)을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 보고식 예비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타당하고 표준화된 척도를 만들고자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구의 타당도나 신뢰도 계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활동만족 척도는 5개의 세부항목별로 정서적 요인 5문항, 사회적 요인 5문항, 교육적 요인 4문항, 자기개발 요인 5문항, 신체적 요인 4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활동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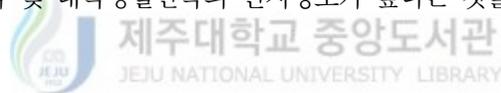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제약 척도도 척도를 제작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원형중, 1998;

Crawford & Godbey, 1991)의 여가제약 척도의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 자료를 구하고 귀납적 내용분석(<표 6>참고)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예비 설문지가 제작되었다. 활동제약 척도 또한, 활동만족 척도와 동일한 분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의 세부항목별로 동기저하 요인 5문항, 시간구속 요인 4문항, 지원부족 요인 3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대학생활만족

대학생활만족 척도는 김재은·이은순·강순화(1997)가 개발한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설문지 등 대학생활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예비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개의 세부항목별로 가치관 요인 4문항, 자기개발 요인 4문항, 대학만족 요인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 요인에 대한 응답정도의 측정은 모두 Likert-type의 5단계 평점척도를 사용하는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전체 항목의 총계가 높을수록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인지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만족의 원 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원자료	반응빈도	1차 주제	2차 주제
풍부한 대인관계	6	대인관계	사회적
원만한 인간관계	3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어서	10		
다양한 친분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6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	2		
선후배간의 관계 개선	10		
이성교제	5	선후배관계	사회적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5	이성과의 관계	
사교성이 좋아짐	2	사교성	사회적
친목도모	9	친목도모	
학교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2	지식습득	교육적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25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6		
깊이 있는 종교생활	3		
새로운 체험	1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12		
기능이 향상되어서	5	기능향상	휴식적
공강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8	시간활용	
공강 시간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6		
평소 공강 시간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1		
대학생활의 여유가 생겨서	1	취미생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4		
취미 활동이 생겨서	7		
여가만족	4	여가만족	신체적
체력증진	5	신체 및 정신건강	
건강해져서	5		
심신단련	6		
정신건강	2		
정신집중	2	비만예방	
다이어트 효과	1		
스트레스 해소	2	정화	정서적
피로회복	3		
감수성이 좋아짐	2		
바른 마음	1		
학교생활이 즐거워짐	5	즐거움	자기개발
남을 배려할 줄 알게됨	2	타인배려	
삶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	3	자신감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	4	자기개발	
자기 만족	2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줌	3	단결심	
단결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서	2	자부심	
자부심과 긍지를 갖을 수 있어서	3	보람	
대학에 들어온 보람이 생겨서	1		
힘들 때 큰 의지가 됨	1		
45 항목	198	23 차원	6차원

<표 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제약의 원 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원자료	반응빈도	1차 주제	2차 주제
강의시간 때문에	8	학업에 대한 부담	학업적 영역
레포트 때문에	6		
시험 때문에	4		
학업에 대한 부담감	5		
성적 문제(F학점 때문에)	2		
공부 때문에	2		
수업에 소홀해짐	1		
전공 공부 때문에	4		
전공관련 자격증 시험 때문에	1	학과 활동	
학과 활동이나 행사 때문에	24		
학원 때문에	5	학원 수강	대인간 영역
가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3	집안의 반대	
동아리 회원과의 갈등	3	회원간 갈등	
친구와의 약속	3	타자와의 약속	
타 약속 때문에	3		
가족들과의 약속 때문에	2		
교회 활동과 겹칠 때	2		
다른 모임과 맞물림	1	활동중복	
규칙적으로 모이기 힘들다	2		
동아리 이중 가입으로 활동이 겹침	6		
혼자 하는 여가활동(독서, 음악감상 등) 때문에	1		개인 여가
시간이 없어서	5	시간 부족	
집에 늦게 귀가해서	3	늦은 귀가	
빨리 끊기는 대중교통	1		
집이 멀어서	1		
아르바이트 때문에	15	아르바이트	경제적 영역
동아리 운영비 부족	5	재정부족	
동아리 활동비 부족	6	비용 부담	
집안 사정 때문에	11	집안 사정	환경적 영역
활동공간 부족	6	활동공간	
동아리 방이 작다	3		
동아리 방이 멀다	2		
다른 동아리들의 이기주의적 운영	2	동아리 운영	
동아리 연합회의 일률적인 행사운영으로 인해	1		
동아리에 대한 주위의 편견	3	주위 인식	
날씨 때문에(우천시)	2	기후 여건	
잡은 술자리로 인하여	4	분위기	
여자로서 소외감(남자가 너무 많아서)	1		
피곤하기 때문에	2	피로	신체적 영역
아파서	1	건강	
게을리서	1	게으름	
관심부족	1		
국방의 의무	1		
43항목	165	23차원	6차원

위의 설문지 구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기초로 하여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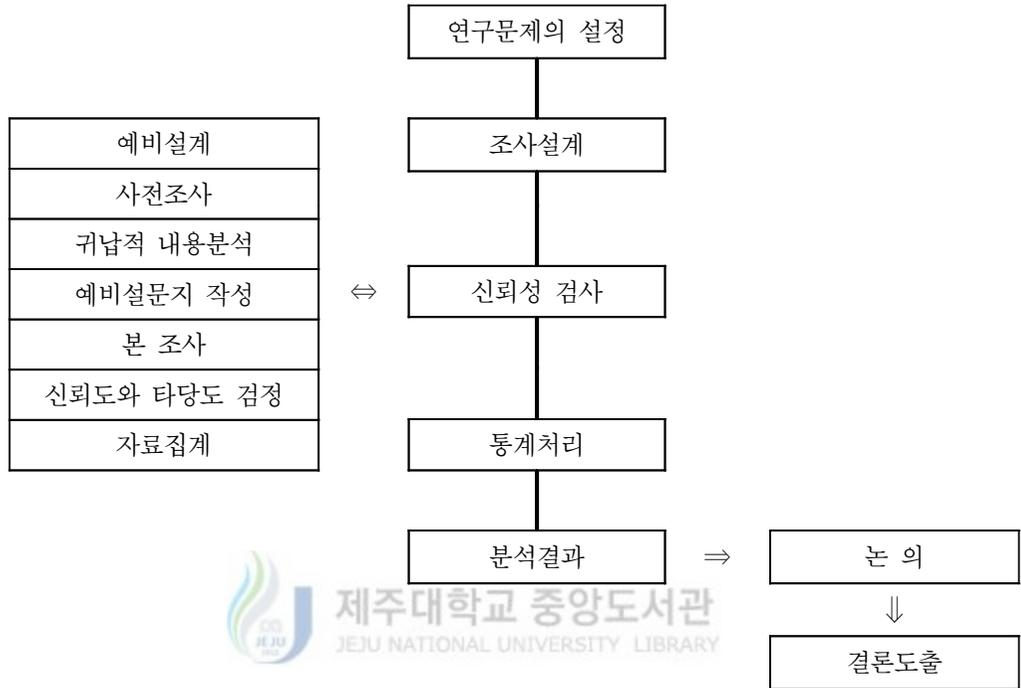
<그림 7>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원 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 분석을 실시한 후, 예비설문지를 제작하여 제주도 소재 대학에는 본 연구자와 교육을 받은 보조자들이 직접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기타 소재 대학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후에 지인들을 통하여 응답시 유의할 사항과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과 질문의 목적을 설명한 뒤 질문내용에 대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절차

4. 자료분석 및 처리

회수된 자료 중 내용이 불성실하여 응답내용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 무기입 자료 등은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분석가능한 자료를 SPSS 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구성타당도(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oblimin rotat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형태 계수가 아니라 사각회전 방식에서 활용하는 구조계수를 제시하였다.

둘째, 내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Item-Total Correlation과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과 단변량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과 단변량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대학생활만족에 대한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대학생활만족의 요인들을 확인하고 분류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측정도구가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자체 제작한 척도를 이용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둘째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셋째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먼저,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50명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로 3개 문항씩 개방형 질문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활동만족 총 24문항, 활동제약, 21문항이 추출되었다. 대학생활만족은 김재은·이은순·강순화(1998) 등 대학생활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20문항을 추출하여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예비척도를 이용하여 전국의 9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에 대한 척도 개발에 착수하였다. 제 1단계로 예비 설문지에 포함된 65개의 문항에 대하여 문항양호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이 서로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문항제거로 인한 전체신뢰도 값의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활동만족 23문항, 활동제약 12문항, 대학생활만족 12문항의 총 47문항을 채택하였다. 제 2단계로 척도 구성의 요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소 고유치의 기준을 .10 이상으로 정하여 주성분 분석과 oblimin rotat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적재치가 .50 이상인 문항과 공통분산치(communality)가 .30 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활동만족 23문항에 5개요인, 활동제약 12문항에 3개요인, 대학생활만족 12문항에 3개요인의 총 47문항이 추출되었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계수 및 내적일관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더불어 설명력이 높고 타당한 항목만으로 척도를 구성하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의 개별 설명력이 3% 이상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척도구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결과는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만족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종속변인	요인적재치					공통분	문항-전체 상관계수
	1	2	3	4	5		
23. 바쁜 대학생활의 여유를 갖게 해주어서	.805	.199	.140	-9.3E-02	.307	.676	.5688
25. 감수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734	.151	.214	-.389	.280	.579	.5668
24.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648	.233	-5.933E-02	-.314	.592	.623	.5642
29.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596	.261	.346	-.321	.286	.443	.4490
19.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해주어서	.582	.264	.167	-.376	.332	.410	.4911
9.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7.951E-02	.735	.123	-.182	4.687E-02	.544	.5300
21.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131	.733	6.393E-03	-.214	9.688E-02	.551	.5781
15.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61	.731	.124	-.282	3.983E-02	.549	.5753
11. 공강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312	.692	.131	-.145	.117	.523	.5427
27.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252	.669	.195	-.386	.166	.507	.5613
22. 학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90	-7.897E-02	.740	-6.833E-02	.156	.628	.4338
16. 다양한 지식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181	.300	.686	-.404	8.108E-02	.575	.4930
28.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263	9.036E-02	.665	-.515	.142	.621	.4832
10. 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338E-02	.414	.578	6.497E-02	.195	.546	.6550
13. 활동 자체가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273	.283	.112	-.730	.370	.588	.5796
32. 평소 내가 하고 싶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385	.165	.141	-.678	.359	.526	.5377
14.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107	.458	.154	-.662	.106	.542	.4823
26.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79	.245	.318	-.655	.135	.511	.5022
17.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게 해주어서	.318	.269	.193	-.583	.408	.439	.4835
18. 체력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289	3.406E-02	.121	-.255	.883	.795	.7489
12.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248	5.037E-02	.136	-.226	.868	.769	.6933
30. 신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해주어서	.487	.199	6.100E-02	-.262	.770	.650	.6637
31.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579	7.169E-02	.178	-.132	.670	.589	.5868
고유치	6.428	2.620	1.706	1.293	1.137		
공통분산 %	27.948	11.393	7.419	5.621	4.945		
누적분산 %	27.948	39.341	46.760	52.381	57.326		
Cronbach's Alpha	.76	.78	.75	.64	.84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계수를 해석함에 있어 0.5이상의 계수만 해석의 대

상으로 판단하였고, ‘요인 1’은 바쁜 대학생들의 여유, 감수성이 좋아짐, 스트레스 해소, 시간 활용, 정서적 안정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6.428이고 전체분산의 27.95%를 설명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총 분산 중 최대부분을 나타내는 선형조합이다. ‘요인 2’는 폭넓은 인간관계, 친분, 사교, 만남의 기회, 밀접한 관계 유지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가 2.620이고 전체분산의 11.39%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학업에 도움, 다양한 지식, 전문적 지식, 정보 습득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1.706이고 전체분산의 7.42%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는 활동자체 흥미, 성취 욕구, 새로운 경험, 자기개발, 새로운 취미생활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기개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1.293이고 전체분산의 5.62%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5’는 체력 증진, 건강 유지, 신체적인 활력, 피로 회복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체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1.137이고 전체분산의 4.95%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동아리 활동만족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계수 및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항-전체 상관계수들의 범위는 .43~.74로 나타나 특정 요인내의 문항 동질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8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64~.84로 양호한 편이다.

<표 8>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제약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문항-전체 상관계수
	1	2	3		
43. 함께 활동하던 동료가 그만 두어서	.767	.170	-.242	.590	.5706
41. 동아리 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721	.235	-.375	.539	.5770
42. 동아리를 이종으로 가입해서	.717	4.595E-02	-.186	.534	.4787
52. 회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711	.242	-.359	.523	.5515
36. 흥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638	.396	-.195	.473	.4754
38. 레포트 때문에	.226	.796	-.247	.634	.5586
39. 시간이 없어서	.195	.739	-.215	.546	.4856
35. 수업 때문에	.131	.715	-.223	.515	.4671
34.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178	.579	-.236	.340	.3544
47. 대학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42	.239	-.812	.680	.4654
51. 동아리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35	.235	-.761	.615	.5152
50. 활동장소가 부족해서	.369	.344	-.754	.593	.5146
고유치	3.788	1.640	1.153		
공통분산 %	31.564	13.665	9.612		
누적분산 %	31.564	45.228	54.840		
Cronbach’s Alpha	.76	.68	.68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제약 척도에 포함될 요인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에 설정한

이론적, 경험적 논거가 없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계수를 해석함에 있어 0.5이상의 계수만 해석의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요인 1’은 동료의 활동 포기, 운영방식의 문제, 동아리 이종가입, 회원간의 갈등, 흥미상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기저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3.788이고 전체분산의 31.56%를 설명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총 분산 중 최대부분을 나타내는 선형조합이다. ‘요인 2’는 레포트, 시간부족, 수업, 친구와의 약속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구속”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가 1.640이고 전체분산의 13.67%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대학의 지원 부족, 동아리 운영비 부족, 활동장소 부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원부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1.153이고 전체분산의 9.61%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항-전체 상관계수들의 범위는 0.43~.74로 나타나 특정 요인내의 문항 동질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1 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68~.76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 9>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문항-전체 상관계수
	1	2	3		
62. 나는 지금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860	.229	.262	.746	.6300
63. 대학 내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794	.359	.350	.646	.6220
67. 나는 특히 우리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693	.211	.545	.596	.5178
57. 나는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628	.406	.218	.433	.4527
65. 나는 대학에서 동료 학생들이나 선�후배간의 관계가 돈독하다	.250	.788	.183	.624	.5517
60. 나는 대학에서 잘 어울려 지낼 만큼 대인관계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74	.771	.209	.617	.4768
61. 나는 대학 내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86	.641	7.035E-02	.450	.4198
55. 나는 대학에서 개인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376	.519	.107	.315	.3255
68. 나는 우리 대학의 학풍이나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384	.206	.771	.614	.5399
58. 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내 행사에 만족한다	.192	.245	.706	.521	.4936
73. 우리 대학은 강의실이나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198	2.415E-03	.689	.489	.4725
54. 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의 질에 대해서 만족한다	.269	.145	.580	.343	.3981
고유치	3.789	1.520	1.087		
공통분산 %	31.577	12.565	9.059		
누적분산 %	31.577	44.242	53.301		
Cronbach’s Alpha	.76	.66	.69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 척도는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계수를 해석함에 있

어 0.5이상의 계수만 해석의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요인 1’은 대학에 다니기로 한 선택의 만족, 대학생살의 만족, 소속대학의 선택 만족, 대학에 다니는 이유와 성취 욕구의 만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치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3.789이고 전체분산의 31.57%를 설명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총 분산 중 최대부분을 나타내는 선형 조합이다. ‘요인 2’는 동료와 선후배간의 관계 만족, 대인관계 기술 만족, 친목활동 참여 만족, 폭넓은 인간관계 만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인관계”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가 1.520이고 전체분산의 12.57%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대학의 학풍이나 분위기 만족, 학교 내 행사 만족, 강의실과 편의시설의 구비 만족, 강의의 질에 대한 만족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학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1.087이고 전체분산의 9.06%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항-전체 상관계수들의 범위는 0.43~.74로 나타나 특정 요인내의 문항 동질성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9 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66~.76으로 양호한 편이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본 연구의 문제 I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에는 차이가 있는가?”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아리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다변량분산분석과 사후검증단계로 단변량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표 10>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성 별		Univariate F (df=1, 807)	p
	남학생(n=488)	여학생(n=321)		
정서적	16.72±3.43	15.80±3.07	15.143	.000
사회적	19.60±2.86	19.52±2.51	.163	.686
교육적	13.42±2.58	13.01±2.27	5.247	.022
자기개발	18.52±3.08	18.47±2.95	.053	.818
신체적	12.81±3.34	11.37±3.02	38.737	.00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38, F(5, 803)=10.602, p<.000, $\eta^2=.062$

<표 10>은 동아리 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 활동만족의 요인들의 평

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6.2%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정서적, 교육적, 신체적 요인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서적, 교육적, 신체적 요인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활동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학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학 년		Univariate F (df=1, 807)	p
	저학년(n=572)	고학년(n=237)		
정서적	16.43±3.41	16.18±3.11	.926	.336
사회적	19.70±2.76	19.26±2.60	4.476	.035
교육적	13.34±2.41	13.05±2.61	2.157	.142
자기개발	18.60±3.02	18.26±3.04	2.173	.141
신체적	12.40±3.26	11.86±3.34	4.518	.034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88, F(5, 803)=1.892, p<.093, $\eta^2 = .012$

<표 11>은 동아리 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서 활동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다변량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5%수준에 근접한 F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각 종속변인들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에서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주관적 건강정도			Univariate F (df=2, 804)	p
	하(n=46)	중(n=301)	상(n=460)		
정서적	16.00±3.01	15.95±3.29	16.67±3.34	4.501	.011
사회적	19.28±2.08 ^{ab}	19.09±2.78 ^a	19.92±2.68 ^b	8.909	.000
교육적	12.59±2.38 ^a	13.05±2.46 ^{ab}	13.47±2.46 ^b	4.426	.012
자기개발	18.39±2.73 ^{ab}	17.92±3.17 ^a	18.91±2.89 ^b	9.998	.000
신체적	11.46±3.54 ^a	11.62±3.27 ^a	12.75±3.19 ^b	12.472	.00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45, F(10, 1600)=4.572, p<.000, $\eta^2 = .028$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12>는 동아리 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건강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서

활동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2.8%가 주관적 건강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모든 요인에서 활동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참여의지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참여의지			Univariate F (df=2, 800)	p
	하(n=113)	중(n=290)	상(n=400)		
정서적	14.64±3.40 ^a	15.62±2.96 ^b	17.36±3.23 ^c	44.781	.000
사회적	18.43±2.76 ^a	19.16±2.63 ^b	20.20±2.59 ^c	25.693	.000
교육적	12.59±2.39 ^a	12.75±2.24 ^a	13.82±2.53 ^b	21.738	.000
자기개발	16.48±3.17 ^a	17.87±2.68 ^b	19.50±2.80 ^c	61.642	.000
신체적	10.53±3.25 ^a	11.68±3.08 ^b	13.10±3.19 ^c	36.003	.00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824, F(10, 1592)=16.193, p<.000, $\eta^2=.092$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13>은 동아리 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의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참여의지에 따라서 활동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9.2%가 참여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의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활동만족의 모든 요인에서 참여의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에서 활동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도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활동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표 14>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종속변인	성 별		Univariate F (df=1, 807)	p
	남학생(n=488)	여학생(n=321)		
동기저하	11.55±3.69	11.36±3.27	.560	.455
시간구속	11.95±3.14	12.14±2.90	.749	.387
지원부족	8.30±2.58	8.38±2.48	.187	.666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97, F(3, 805)=.727, p<.536, η^2 = .001

<표 14>는 동아리 활동제약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활동제약의 요인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제약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0.1%만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5> 학년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종속변인	학 년		Univariate F (df=1, 807)	p
	저학년(n=572)	고학년(n=237)		
동기저하	11.37±3.57	11.73±3.42	1.796	.181
시간구속	11.71±3.11	12.79±2.75	21.364	.000
지원부족	8.21±2.58	8.63±2.42	4.722	.03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74, F(3, 805)=7.247, p<.000, η^2 = .026

<표 15>는 동아리 활동제약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서 활동제약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제약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2.6%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제약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시간구속과 지원부족 요인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시간구속과 지원부족 요인에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보다 활동제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6>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종속변인	주관적 건강정도			Univariate F (df=2, 804)	p
	하(n=46)	중(n=301)	상(n=460)		
동기저하	12.67±3.58	11.88±3.48	11.07±3.50	7.710	.000
시간구속	12.52±2.71	11.96±2.94	12.02±3.14	.675	.509
지원부족	9.46±2.35 ^a	8.35±2.51 ^b	8.20±2.51 ^c	5.200	.006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73, F(6, 1604)=3.713, p<.001, $\eta^2=.014$

<표 16>은 동아리 활동제약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건강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서 활동제약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제약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1.4%가 주관적 건강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제약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동기저하와 지원부족 요인에서 건강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부족 요인에서 건강정도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활동제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참여의지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

종속변인	참여의지			Univariate F (df=2, 800)	p
	하(n=113)	중(n=290)	상(n=400)		
동기저하	12.51±3.22 ^b	12.12±3.30 ^b	10.75±3.63 ^a	19.132	.000
시간구속	12.69±2.79 ^b	12.28±2.92 ^{ab}	11.70±3.12 ^a	6.049	.002
지원부족	8.33±2.67	8.62±2.37	8.15±2.60	2.870	.057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45, F(6, 1596)=7.654, p<.000, $\eta^2=.028$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17>은 동아리 활동제약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의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참여의지에 따라서 활동제약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제약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2.8%가 참여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제약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의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지원부족 요인을 제외한 2개의 요인에서 참여의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기저하와 시간구속 요인 모두에서 참여의지가 낮은 참여자가 활동제약이 높게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표 18>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성 별		Univariate F (df=1, 807)	p
	남학생(n=488)	여학생(n=321)		
가치관	13.30±2.76	13.02±2.96	1.917	.167
대인관계	13.57±2.50	13.13±2.24	6.586	.010
대학만족	11.41±2.77	10.85±2.58	8.352	.004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85, F(3, 805)=4.210, p<.006, $\eta^2 = .015$

<표 18>은 대학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1.5%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학생활만족의 대인관계와 대학만족 요인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인관계와 대학만족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9>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학 년		Univariate F (df=1, 807)	p
	저학년(n=572)	고학년(n=237)		
가치관	13.22±2.89	13.11±2.73	.235	.628
대인관계	13.41±2.43	13.35±2.36	.081	.776
대학만족	11.44±2.77	10.58±2.45	17.283	.00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76, F(3, 805)=6.719, p<.000, $\eta^2 = .024$

<표 19>는 대학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

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2.4%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대학만족 요인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만족 요인에서 저학년들이 고학년들보다 대학생활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0>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주관적 건강정도			Univariate F (df=2, 804)	p
	하(n=46)	중(n=301)	상(n=460)		
가치관	12.67±3.33	12.88±2.82	13.44±2.78	4.280	.014
대인관계	12.00±2.97 ^a	13.00±2.28 ^b	13.79±2.34 ^c	18.518	.000
대학만족	10.50±2.97 ^a	11.30±2.61 ^b	11.19±2.75 ^{ab}	1.720	.18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47, F(6, 1604)=7.311, p<.000, $\eta^2=.027$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른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20>은 대학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건강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2.7%가 주관적 건강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대인관계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 요인에서는 건강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만족 요인에서는 건강정도를 보통으로 지각하는 집단이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 참여의지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참여의지			Univariate F (df=2, 800)	p
	하(n=113)	중(n=290)	상(n=400)		
가치관	12.40±2.63a	12.73±2.94a	13.72±2.69b	15.765	.000
대인관계	12.39±2.68a	13.07±2.20b	13.92±2.34c	23.282	.000
대학만족	10.72±2.56a	11.00±2.69ab	11.47±2.75b	4.660	.01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34, F(6, 1596)=9.308, p<.000, $\eta^2=.034$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21>은 대학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의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참여의지에 따라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대학생활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3.4%가 참여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 단계로 대학생활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의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대학생활만족의 모든 요인에서 참여의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치관과 대학만족 요인에서는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요인에서는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본 연구의 문제 II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라서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에는 차이가 있는가?”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의 차이

<표 22>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동아리 활동유형				Univariate F (df=3, 805)	p
	문화·예술 (n=210)	종교·봉사 (n=217)	학술·교육 (n=166)	건강·스포츠 (n=216)		
정서적	17.00±3.01 _b	15.71±3.36 _a	15.46±3.63 _a	17.07±3.05 _b	18.219	.000
사회적	19.63±2.72	19.38±2.80	19.92±2.67	19.44±2.67	1.503	.212
교육적	13.17±2.01 _a	12.95±2.37 _a	14.25±2.86 _b	12.89±2.47 _a	12.144	.000
자기개발	19.20±2.86 _c	17.48±3.02 _a	18.06±2.99 _b	19.19±2.86 _c	18.066	.000
신체적	11.85±2.88 _b	11.12±2.98 _a	10.77±3.14 _a	14.88±2.47 _c	87.759	.000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608, F(15, 2211)=29.171, p<.000, $\eta^2=.153$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22>는 동아리 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동아리 유형에 따라서 활동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활동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15.3%가 동아리 활동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동아리 활동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4개의 요인에서 동아리 활동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정서적 요인에서는 문화·예술과 건강·스포츠 활동의 참여자들이 종교·봉사와 학술·교육활동 집단보다 활동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적 요인에서는 학술·교육활동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요인에서는 종교·봉사활동 집단이 활동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제약의 차이

<표 23>은 동아리 활동제약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동아리 유형에 따라서 활동제약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공은 활동제약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1.2%가 동아리 활동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2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제약의 차이

종속변인	동아리 활동유형				Univariate F (df=3, 805)	p
	문화·예술 (n=210)	종교·봉사 (n=217)	학술·교육 (n=166)	건강·스포츠 (n=216)		
동기 저하	11.62±3.52 ^{ab}	12.18±3.61 ^b	11.11±3.30 ^a	10.90±3.51 ^a	6.529	.001
시간 구속	11.72±3.10	12.31±3.00	12.31±3.08	11.82±2.98	2.127	.095
지원 부족	8.28±2.50	8.34±2.41	8.24±2.82	8.45±2.48	.281	.839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64, F(9, 1954)=3.321, p<.000, $\eta^2=.012$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후 검증 단계로 활동제약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동아리 활동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동기저하 요인만이 동아리 활동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동기저하 변인에서 종교·봉사활동 집단이 다른 활동 집단보다 활동제약이 높게 나타났다.

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표 2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종속변인	동아리 활동유형				Univariate F (df=3, 805)	p
	문화·예술 (n=210)	종교·봉사 (n=217)	학술·교육 (n=166)	건강·스포츠 (n=216)		
가치관	13.05±2.72	13.12±2.95	13.09±2.78	13.47±2.89	.998	.393
대인관계	13.41±2.33	13.20±2.36	13.45±2.54	13.39±2.41	.741	.528
대학만족	11.17±2.75 ^{ab}	11.34±2.72 ^b	10.67±2.54 ^a	11.47±2.76 ^b	3.040	.028

Multivariate Effect : Wilks' Lambda=.983, F(9, 1954)=1.541, p<.128, $\eta^2=.006$

* abc 문자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24>는 대학생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라서 대학생생활만족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같지 않다는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타 제곱은 대학생생활만족 요인들의 선형결합에서 분산의 0.6%가 동아리 활동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변량 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 단계로 대학생생활만족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동아리 활동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정 결과를 점검하였다. 점검한 결과, 대학만족 요인만이 동아리 활동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단변량 분석에 이어서 각 변인별 구체적인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건강·스포츠와 종교·봉사활동 집단이 문화·예술과 학술·교육활동 집단보다 대학생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의 관계

본 연구의 문제 Ⅲ은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유형은 건강·스포츠활동과 기타 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하여 가변인(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즉, 건강·스포츠활동에 1, 기타동아리 활동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의해 나타난 변인간 상관행렬표는 <표 25>과 같다.

<표 25>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의 상관관계

변 인	동아리 활동유형	활동제약	활동만족	대학생활만족
동아리 활동유형	1.000	-.057	.201***	.069*
활동제약		1.000	-.257***	-.139***
활동만족			1.000	.357***
대학생활만족				1.000

* p<.05, ** p<.01, *** p<.001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리 활동유형은 활동제약 요인과는 매우 낮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생활만족과는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활동만족과는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활동제약은 활동만족 요인과 대학생생활만족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활동제약이 낮을수록 활동만족과 대학생생활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활동만족과 대학생생활만족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수만으로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인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활동만족과 대학생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6>이다.

일차적으로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허용치의 역수인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점검한 결과, 변인들의 VIF는 모두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며, 최대의 상태지수를 갖는 고유벡터가 90% 이상 설명하는 변인이 하나밖에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과 정규분포 가정도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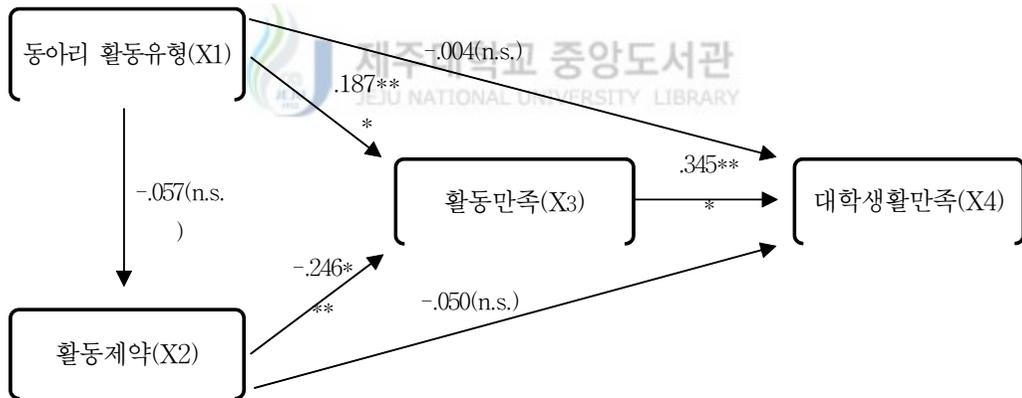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p
		B	표준편차			
활동만족	동아리 활동유형	4.485	.803	.187	5.587	.000
	활동제약	-.377	.051	-.246	-7.346	.000
	상 수	90.738	1.698			
R=.317, $R^2=.101$, F(2, 806)=45.097, p<.000						
대학생활만족	동아리 활동유형	-0.049	.466	-.004	-.016	.916
	활동제약	-0.045	.030	-.050	-1.476	.140
	활동만족	.200	.020	.345	9.954	.000
	상 수	23.238	2.062			
R=.361, $R^2=.130$, F(3, 805)=40.086, p<.000						

<표 26>에서 보는 같이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Beta)를 사용하였고 .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내었다. 동아리 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

고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제약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1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806)=45.097, $p<.000$]. 모든 변인이 활동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활동제약이 활동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유형도 활동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활동제약이 낮을수록 활동만족이 높고 건강·스포츠활동 집단이 활동만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학생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유형, 활동제약, 활동만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13%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 805)=40.086, $p<.000$]. 표준화회귀계수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활동만족 변인만이 대학생활동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림 9>는 회귀분석에서 얻은 표준화회귀계수(Beta)를 이용하여 경로도형을 설정한 것이다.



<그림 9>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동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도형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제약은 대학생활동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활동만족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대학생활동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7>은 대학생의 대학생활동만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총인과효과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27> 네 개의 변인으로 구성된 경로도형의 공변량 분해 결과

	X1 X2	X1 X3	X1 X4	X2 X3	X2 X4	X3 X4
공변량	-.057	.201	.069	-.257	-.139	.357
총인과효과	-.057	.201	.069	-.246	-.135	.345
직접효과	-.057	.187	-.004	-.246	-.050	.345
간접효과	-	.014	.072	-	-.085	-
의사효과	-	-	-	.011	.004	.012

<표 2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제약간에는 -.057의 인과효과를 갖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유형은 활동만족에 .187의 직접 효과와 활동제약을 경유한 .014의 간접효과를 합하여 총 .201의 인과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유형은 대학생활만족에 -.004의 직접효과와 .072의 간접효과를 합한 총 .069의 인과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미비하다. 활동제약은 활동만족에 -.246의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활동제약은 대학생활만족에 -.050의 직접효과와 활동만족을 경유한 -.085의 간접효과를 합한 총 -.135의 인과효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활동만족은 대학생활만족에 .345의 직접효과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활동만족 변인이며, 건강·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제약을 적게 느끼는 집단일수록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현대사회에서의 여가생활은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과 함께, 건강증진, 생활 수준의 향상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표의 일부분으로써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대학생들의 대표적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생생활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동아리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대학생생활만족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만족과 여가제약, 생활만족의 측정도구로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타당도나 측정치들의 신뢰도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목록 내에서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대학생생활만족 요인들을 확인하고 분류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자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과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대학생생활만족의 차이를 규명하고, 동아리 유형에 따른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및 대학생생활만족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동아리 활동만족의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분명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자기개발, 신체적 요인 등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활동만족 요인들은 이종길(1992)이 제시한 여가만족 척도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또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8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64~.84로 양호한 편이다.

동아리 활동제약 요인구조는 동기저하, 시간구속, 지원부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구조와 다른 연구들에서 밝혀진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상이한 모집단, 특정여가활동 및 제약문항의 수와 종류로 인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Raedeke와 Burton(1997)의 분류한 동기부족, 프로그램 제약, 자원제약의 요인구조는 본 연구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1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68~.76로 양호한 편이다.

대학생활만족 척도는 김재은·이은순·강순화(1997)의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설문지 등 대학생활동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예비 척도를 제작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구조는 가치관, 대인관계, 대학만족의 3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9 이고 하위 요인별 계수는 .66~.76으로 양호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측정도구들은 동아리 활동 상황에서 도구들의 구성타당도(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를 밝히는데는 무리가 없었으나, 일부 문항들이 자신이 속한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의 상관계수를 보임으로써 추후 측정상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특정개념의 측정척도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확증요인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동만족의 차이

먼저 성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동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 교육적, 신체적 요인에서 활동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를 가장 많이 나타내주는 활동만족 요인은 신체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활동제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남녀의 동아리 활동만족의 차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사회화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여성스러움과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역할 갈등으로 여가기회의 상대적 박탈수준이 높고, 학습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참여 및 여가인지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낮다는 정영린(1997)의 연구결과와 신체적 능력 시험, 체력증진, 건강유지, 신체적 활력 추구 등의 신체적 요인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영역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의한 김승곤 등(199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학생활동만족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생활감정을 가진다는 Braun(1977)의 연구결과와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자신의 여가생활, 건강에 대하여 불만족 수준이 높다는 Campbell(1981)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동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의 차이는 활동만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Mancini & Orthner, 1980; Riddick, 1986; Russel, 1990)와 일치하고 있다. Russel(1990)은 노인의 레크리에이션 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과 레크리에이션 만족은 $r=.184$ 로서 비교적 낮은 부적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Riddick (1986)은 연령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변인간에 곡선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22세 연령집단(M=87.6)이 50세의 연령집단(M=77.3)보다 여가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영린(1997)은 연령과 여가만족간에 유의한 부적상관($r=-.068$)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동아리 활동제약에서는 시간구속과 지원부족 요인에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보다 활동제약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에서도 고학년들이 활동제약을 지각함으로써 대학생 생활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진로나 취업 문제 등으로 동아리 활동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생활만족에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주관적 정도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만족은 건강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모든 요인에서 활동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제약에서는 지원부족 요인에서 건강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활동제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만족에서도 대인관계 요인에서 건강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Riddick(1986)과 Sneegas(1986) 등의 연구결과와 안혜영(1995)의 건강이 좋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건강상의 문제나 제약은 동아리 활동 기회를 제한시켜 동아리 활동과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건강할수록 동아리 활동만족과 대학생활만족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의지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만족은 하위요인 5개의 모든 요인에서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에서 동아리 활동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제약에서는 하위 요인인 동기저하와 시간구속 요인에서 참여의지가 낮은 참여자가 동아리 활동제약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에서는 하위요인인 가치관과 대학만족 요인에서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요인에서는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경식(1996), Ragheb와 Griffith(1982), Keller (1983)의 여가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종길(1992)은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체육 참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사회체육 참가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하여 사전 생활만족도에서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사후 생활만족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가활동으로써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활동만족과 대학생활만족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특정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생활만족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김경식

(1996)의 연구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의 여러 선행변인들의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변인들이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충분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동아리 활동만족과 대학생활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참여의지의 적극성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강도, 빈도, 기간이 포함된 참여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가자원의 지식, 여가 가치, 가계수준, 중요타자의 여가태도, 스트레스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좀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아리 활동유형은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4개의 요인에서 동아리 활동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요인에서는 문화·예술과 건강·스포츠 활동의 참여하는 집단이 종교·봉사와 학술·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집단보다 활동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적 요인에서는 학술·교육활동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요인에서는 종교·봉사활동 집단이 활동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곤·양명환(1995), 임변장·정영린(1995), Ragheb와 Griffith(1982), Russel(1990) 등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여가에 대한 하위요인별 여가만족도에서 스포츠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유형 중 스포츠활동이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라 개인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특정 여가활동과 여가만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동아리 활동제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인 동기저하 변인에서 종교·봉사활동 집단이 다른 활동 집단보다 활동제약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유형에 따른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스포츠와 종교·봉사활동 집단이 문화·예술과 학술·교육활동 집단보다 대학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라서도 대학생활만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Ragheb와 Griffith(1982)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사회활동($r=.29$), 스포츠활동($r=.26$), 야외활동($r=.26$), 문화활동($r=.20$), 독서($r=.13$), TV시청($r=.11$), 취미($r=.0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스포츠와 야외활동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도 스포츠활동이 여가만족과 같이 생

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정식(1996), 노형규(1998) 등의 연구에서도 생활체육과 같은 특정 여가활동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스포츠활동과 같은 특정 여가활동은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동아리 활동유형을 건강·스포츠활동과 기타 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하여 가변인(dummy variable) 처리하여 건강·스포츠활동에 1, 기타동아리 활동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활동만족과 대학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단계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아리 활동유형은 활동제약 요인과는 매우 낮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만족과는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활동만족과는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활동제약은 활동만족 요인과 대학생활만족에 대해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활동제약이 낮을수록 활동만족과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만족과 대학생활만족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Beta)를 사용하였고, .05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활동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제약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1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변인이 활동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활동제약이 활동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유형도 활동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활동제약이 낮을수록 활동만족도가 높고 건강·스포츠활동 집단이 활동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대학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동아리 활동유형, 활동제약, 활동만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이 13%로 나타남으로써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식(1996)의 연구에서 최종 결정계수가 8%정도를 설명하는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표준화회귀계수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활동만족 변인만이 대학생활

만족에 34.5%의 직접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제약은 대학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활동만족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대학생활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경빈(1998)이 대학생 남자 739명, 여자 414명 총 1153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참여와 대학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정도는 대학만족과 여가만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모든 여가활동에서 각각의 참여정도는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대학만족과 여가만족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제약의 각 변인들은 직접적으로 대학생활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활동만족을 통해서 대학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김성희(1997)는 25세 이상의 가정주부 754명을 대상으로 여가제약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여가제약 요인은 생활만족의 기본요인인 여가만족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변인으로 보았으며, 여가만족은 생활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여가제약 및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여가만족과 대학생활만족의 변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미비하지만,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상호 비교와 논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표적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와 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 그리고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소재한 9개 대학에서 2002학년도 2학기의 등록을 마친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다단계집락 표집법(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900명이었으며,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인원은 809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실정과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느껴 자체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측정도구 개발에 앞서, 선행연구들의 설문지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이라는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자기 보고식 예비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타당하고 표준화된 척도를 만들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또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된 통계기법은 주성분분석과 oblimin rotation을 이용한 요인분석, 다변량분산분석, 단변량 분산분석, Duncan 다중범위 검증,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년을 제외한 성, 주관적 건강정도, 참여의지는 동아리 활동만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활동만족도가 다른 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제약에서는 성을 제외한 3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생활만족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신의 건강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대학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아리 활동유형은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특히 건강·스포츠활동에서 활동만족이 다른 요인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활동만족은 대학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제약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대학생활만족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활동만족과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함으로써 대학생의 여가활동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론적·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수적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여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도구가 동아리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을 전체적으로 대표한다고 확증할 수 없으며, 추후 다양한 요인을 추가시키는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정도(빈도, 강도, 기간) 등 다양한 배경변인의 추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참여의지가 높은 집단이 활동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역으로 활동제약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참여빈도, 강도 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학의 학생들이 주가 되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을 비교하는 것도 가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여와 비참여 집단간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횡단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단기간의 종단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경빈(1998). 대학생의 여가활동참여와 대학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봉화(1997). 서울 시민의 여가생활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여가레크리에이션연구 제14권, 75-86.
- 고수민(1998). 교사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혜숙(199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여가권태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창모(1995). 청소년의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창모(1997). 여가제약의 연구 동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보, 제11권, 2-7.
- 김경식(199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진(1993). 대학생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제14권 제1호, 55.
- 김동진·김재운(2000). 대학생의 동아리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제21권 제2호, 61-70.
- 김동환(1999). 여성의 레크리에이션 운동참여를 구속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81-87.
- 김미연(1996).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96). 도시거주 가정 주부의 여가제약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의 관계.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곤·양명환(1995).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제주대학교 체육과학연구, 창간호, 71-87.
- 김양례(2000).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69-81.
- 김오중(2000). 여가·레크리에이션 총론. 서울 : 대경북스.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운(2001). 대학생의 교양체육 수강과 동아리 활동 참여가 여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5권 2호, pp. 126-133.
- 김재은·이은순·강순화(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 집문당.

- 김정주·천장웅·김영지·임지연(1998). 지역 청소년센터 모델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종환(1995). 생애주기에 따른 대도시 주민의 여가활동유형 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곤·성한기·이춘희·박경자(1991). 대학생할 만족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4권 제1호, 154-167.
- 남사용·이창준·양명환(1997). 테니스활동 충성도와 제약 지각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체육과학연구, 제3집.
- 노형규(1998).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모창배(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생활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희영(2000).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1995). 고등학생의 몰입형 여가경험이 여가기능, 여가권태,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2000).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한국레크리에이션교육학회지, 제2권, 21-40.
- 박용란(2000).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 동기 및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주(1997). 대학생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집단 여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2). 대학생할의 길잡이.
- 안혜영(1995).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환(1997). 대학생들의 테니스 활동제약에 대한 요인 분석. 경남체육연구, 제2권 제2호, 33-47.
- 양명환(2000). 여가스포츠 참여동기, 제약요인 및 만족도에 대한 분석: 윈드서핑.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5권 1호, 169-178.
- 엄운섭(1996). 대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2권 1호, 107-134.
- 원형중(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7권 2호, 369-386.
- 유승일(1999).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주관자와 참여 장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종효(2000).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요인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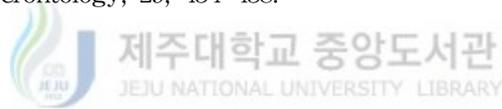
학위논문.

- 이근모·황태상(1999). 21C 직장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체육 및 여가 Program Model 개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8권, 제2호, 200-223.
- 이명옥(1999).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우(2000).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유형과 여가 몰입경험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완(2000). 교사의 여가활동참여유형, 직무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자(2001).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1997).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철화(1999). 도시 성인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참여장애지각.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1호, 603.
- 이현청(1999). 한국의 대학생 - 의식구조와 국제경쟁력 -. 서울 : 원미사.
- 임동일(2001). 주부의 생활체육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변장·정영린(1995).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11호, 92-101.
- 임상용(1995). 스포츠 활동참여와 생활만족 및 우울성향 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체육과학 연구, 창간호, 174-183.
- 정영린(1997).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수진(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봉국(1993).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태화(2001).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장호·박영숙(2000).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4호, 429-439.
- 최태수(2001). 특수학교 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실태 및 여가 장애.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근하(1998). 동아리 유형별 여가만족 및 대학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석표(1991).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보관(1992). 여가활동유형과 주관적 여가경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 산(2000).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관한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mmel, G., & Bammel, L. L.(1996). Leisure and human behavior. 3rd Ed. Dubuque. I. A. : Brown & Benchmark.
-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2, No. 1, 20-33.
- Braun, P. M. W.(1977).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ocation in the social structure(Doctoral Do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76)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2351A.
- Buchanan. T.(1985). Commitment and leisure Behavior: A theoretical perspective. Leisure Sciences, 7, 401-420.
- Campbell, A.(1981). The senes of well-being of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 Crawford, D. W., & Jackson, E. L.,&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309-320.
- Driver, B. L. & Tocher, R. S.(1970). Toward a behavioral interpretation of recreational engagements with implication for planning. In B. L. Driver(eds.), Elements of outdoor recreation planning(pp. 1-31), Ann Arbor, Michigan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river, B. L. & Knopf, R. C.(1976). Temporary escape- One product of sport fisheries management. Fisheries, 1(2), 21-29.
- Godbey, G.(1994). Leisure in your life: An exploration, 4th Ed. P. A.; Venture Publishing.
- Graefe, A. R. & Fedler, A. J.(1986). Situational and subjective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in marine recreational fishing Leisure sciences. 8(3), 275-295.
- Graney, M. J. & Marshall, J.(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30(6), 701-706.
- Gray, David(1969). This Alien thing called Leisure in Reflection on the Recreation and

- Park Movement, 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
- Hendee, J. C. & Byran, H.(1978). Social benefits of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In proceedings, 58th annual conference of the western association of fish and wildlife agencies, 58, 234-254.
- Henderson, K. A. & Stalnaker, D.(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69-80.
- Hultsman, W. Z.(1993). The influence of others as a barrier to recreation participation among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2), 150-164.
- Iso-Ahola, S. E. & Ellen Wessinger(1984). Leisure and Well-being: Is the Connection?, *Parks and Recreation*, 19(june): 40-44.
-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gue iowa* :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 Jackson E. L.(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10, 203-215.
- Jackson E. L.(1990). Variations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activity: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55-70.
- Jackson E. L.(1991). Leisure constraints/ constrained leisure: Special issue introdu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279-285.
- Jackson E. L.(1993). Recognizing patterns of leisure constraints : Results from alternative analys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2), 129-149.
- Jackson E. L., & Dunn, E.(1988). Integrating cea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aspects of leisure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 31-45.
- Jackson E. L., & Rucks, V. C.(1993). Reasons for ceasing 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further examination of constrained leisure as an internally homogeneous concept. *Leisure Sciences*, 15, 217-230.
- Mancini, J. A. & Orthner, D. K.(1980). Situational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morale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 McCarville, R. E., & Smale, B.(1993). Perceived constraints to leisure participation within five activity domain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 Kelly, J. R.(1982). *Leisure Styles : A hidden core*. *Leisure Sciences* 5, 321-327.
- Kelly, J. R.(1990). *Leisure*(2nd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87-284.
- Raedeke, T. D. & Burton, D.(1997). Personal investment perspective on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Role of incentive, program compatibility, and

-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9, 209-228.
- Ragheb, M. G. & Griffith. C. A.(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295-306.
- Riddick, C. C.(1986).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s, *Leisure Science*, 7. 47-63.
- Russell, R. V.(1990). Recreation and quality of life in old age : A caus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9(1), 70-90.
- Samdahl, D. M. & Jekubovich, N. J.(1997). A critique of leisure constraints : comparative analyses and understanding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430-452.
- Sneegas, J. J.(1986).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ddle and later life adults :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248-258.
- Spreitzer, E. A. & Snyder, E. E.(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458.



II.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문 : 나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이유 때문에) 만족한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모르 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수업 시간 이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4.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5. 활동 자체가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8. 다양한 지식을 얻게 해주어서	①	②	③	④	⑤
9.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게 해주어서	①	②	③	④	⑤
10. 체력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2.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3.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4. 학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5. 바쁜 대학생활의 여유를 갖게 해주어서	①	②	③	④	⑤
16.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17. 감수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⑤
18.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0.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1.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2. 신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3.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4. 평소 내가 하고 싶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 문항들은 동아리활동에 규칙적으로(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문 : 나는 _____ (이유 때문에) 동아리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모르 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수업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4. 흥미가 없어져서	①	②	③	④	⑤
5. 잦은 술자리로 인하여	①	②	③	④	⑤
6. 레포트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시간이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8. 가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9. 동아리 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10. 동아리를 이중으로 가입해서	①	②	③	④	⑤
11. 함께 활동하던 동료가 그만 두어서	①	②	③	④	⑤
12. 집안 사정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3. 피곤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4.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①	②	③	④	⑤
15. 대학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16. 집에 늦게 귀가해서	①	②	③	④	⑤
17. 회원들 간에 규칙적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서	①	②	③	④	⑤
18. 활동 장소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19.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20. 회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1. 학과 행사나 학과 활동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문항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모르 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에서 듣고 있는 강의의 질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에서 개인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수업 이외의 활동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내 행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은 나의 전공영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학에서 잘 어울려 지낼 만큼 대인관계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대학 내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금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대학 내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금의 학업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대학에서 동료 학생들간이나 선후배간의 관계가 돈독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특히 우리 대학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 대학의 학풍이나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전공영역은 나의 진로와 향후 취업과 많은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피로나 불안, 대학생활의 긴장을 해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앞으로 대학생활에서 닥칠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대학은 강의실이나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